

유럽연합, 소프트웨어 특허화 법안 승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화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C)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 이사회는 지난 3월 7일(현지시각), 그동안 극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켜 온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거부한 적이 있어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프트웨어를 특허화 할 수 있는 것을 빼내고 하는 이 법안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들로부터 환영 받아왔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중소형 IT 기업들은 '혁신을 압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런 반발을 의식해 당일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덴마크, 폴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슬람 빈 라덴, '빈 라덴' 상표로 등록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동생으로 스위스에 살고 있는 예슬람 빈 라덴이 자신의 가문 이름인 '빈 라덴'을 상표로 등록했다.

예슬람은 지금 당장 '빈 라덴'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품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빈 라덴'이라는 이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빈 라덴'은 당초 9·11 테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1년 8월 상표로 등록됐지만

스위스 법원이 2002년 7월 '빈 라덴'이라는 상표가 스위스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며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하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스위스 법원은 '빈 라덴'이라는 상표가 스위스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상표 등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될 수 있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무효화했다.

20년간 제네바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슬람은 형인 오사마 빈 라덴이 저지른 9·11 테러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여 설명했다. 어머니는 그림대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 철사를 동그랗게 구부려서 텔ガ죽을 덧대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자 양쪽 귀부분에 매달았다. 다음날, 채스터는 귀마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호수로 갔다. 나와 있던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채스터의 모자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채스터의 귀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부터 채스터의 어머니는 매우 바빠졌다. 이웃들이 채스터의 것과 같은 귀마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귀마개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채스터의 어머니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귀마개를 만들어 팔기로 하였고, 아주 잘 팔린 덕분에 그의 가족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4년이 지난 뒤인 1877년 3월 13일, 채스터 그린우드는 그의 발명품인 귀마개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본격적인 귀마개 판매사업을 벌였다. 그는 귀마개에 용수철을 달는 등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도록 고쳤다. 귀마개의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37년에는 1백만개가 팔렸고, 채스터 그린우드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왕연중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발명교실' 등 발명도서 92권 집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과기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산업포장 등 수상.

